

청년세대 내 불안정성은 계층화되는가?: 청년불안정노동의 유형과 세대 내 격차 결정요인

이승윤*, 백승호**

1. 서론

후기산업사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불확실성이다. 올리히 벡의 『위험사회 Risk Society』(1992)와 지그문트 바우만의 『액체사회 Liquid Society』(2000)는 이러한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에 대한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에게 불확실성의 의미는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이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 세대가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면 보장되었던 확실성과 안정성이 현격히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한 직장에서 숙련도가 쌓이고 임금이 상승해서 가족을 계획할 만큼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부모세대보다 자녀세대의 삶이 더 나아지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워졌다. 청년세대는 자신들이 노력하여 취득한 교육과 숙련의 내용보다 더 빨리 변화하는 기술과 노동시장 상황, 비표준적인 일의 형태(Non-standard form of work)가 확대되고 있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어떤 경로를 따라 경력개발을 해야 할지도 불확실해진 것이다.

노동시장과 관련한 청년들의 문제는 한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청년들의 삶의 불안정성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프리카리아트의 확산에 대한 연구들은, 서비스 경제로의 산업구조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표준적 고용관계의 해체, 저숙련, 비정규직 고용 위주의 서비스 부문 확장을 불안정노동이 확산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여기서 프레카리아트(preariat)는 불안정한precarious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를 합성한 단어로 불안정한 노동

본 연구는 2021년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의 발표를 위해 준비한 1차원고로 추가분석과 해석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인용이 필요한 경우 저자에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leesophiasy@cau.ac.kr)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livevil@catholic.ac.kr)

자 계층을 뜻한다. 가이 스탠딩은 불안정성에 노출된 비정규직, 일용직, 파견직, 실업자뿐만 아니라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정규직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프레카리아트를 설명하면서 프레카리아트의 다수는 청년이라고 분석하였다.

특히,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청년세대의 문제 중 하나는, 교육에 투자한 사적비용이 더 높고 고학력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잠재실업, 장기실업 그리고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상태의 노동자로 전전하거나, 니트, 히키코모리 등의 모습으로 노동시장을 떠나는 선택이 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이승윤 2019). 또한, 고학력자 비율이 높은 한국의 청년들은 대출받은 학비에 대한 부담, 주거비 마련의 부담과 함께 삶 전반의 불안정성이 국제적으로 비교하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청년(15-29세)의 전반적인 노동시장 참여현황을 보면, 청년들의 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 47.3%에서 2013년 42.9%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2020년 46.4% 수준으로 증가했지만(통계청, 2021), 여전히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지 않다. 고용률은 2020년 현재 42.2%에 불과하다. 2020년 공식적인 청년실업률은 9%로 매우 높다(통계청, 2021).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대변해주는 현상 중의 하나로 니트족(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의 문제도 심각하다(이승윤 외, 2016). 2017년 기준 청년 NEET족의 비율은 18.4%로 OECD 38개국 중 일곱 번째로 높다(OECD, 2019). OECD 평균 니트족의 비율은 13.4%였다. 특히 전문대 졸업 이상 고학력 니트족의 비율은 2019년 36.9%에서 2020년 41.3%까지 증가하였다(이부형·류승희, 2021). 이는 주로 저학력일수록 니트족이 될 위험이 높아진다는 일반적인 설명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OECD는 이를 두고, 분절화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한국 청년들이 비효율적인 과잉 교육을 받음으로써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한다(OECD, 2016). 한국의 대학진학률이 2017년 기준으로 68.9%로 매우 높으면서(교육부, 2018) 15-29세 청년고용률은 42%로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 해준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한국 청년들이 경험하는 장기실업, 불안정한 고용 상태, 낮은 소득 수준, 사회보험 배제, 주거빈곤, 부채 증가 등 청년의 삶 전반에서 보여지는 불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청년세대의 불안정성에 대한 논의는 연애·출산·결혼을 포기했다는 뜻의 삼포세대를 비롯하여, 거기에 더해 인간관계·내집마련을 포기한 오포세대, 급기야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칠포세대, 이제는 N포세대 등과 같은 신조어들의 유통과 함께 청년세대의 문제는 학계뿐만 아니라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 청년들을 묘사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신조어들은 현재 한국 청년들의 불안정성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청년의 불안정성은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승윤 외 2017).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보여지는 청년세대의 불안정성과 관련하여 연구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박지애·남춘호, 2015; 박미희·홍백희, 2014; 오성욱, 2013; 이병희, 2011; 이상준·김미란, 2010; 김경휘, 2009; 반정호 외, 2005; 변금선, 2015; 심재희·김경근, 2015; 이자형·이기혜, 2013; 황여정·백병부, 2008; 이병희, 2003; 김유빈, 2015; 신선미 등, 2013, 정준영, 2015; 최용환, 2015, 금재호, 2013; 박성재·반정호, 2012; 남재량·김태기, 2000, 강순희, 2016; 김수정·김영, 2013; 백학영, 2013; 이현욱, 2013; 노혜진, 2012; 변금선, 2012; 김수정, 2010, 최은영, 2014; 최병숙 등, 2013; 정민우·이나영, 2011).

최근 들어, 청년노동시장의 문제에 대해 지배적인 담론은 불평등 세대론이다(이철승, 2020). 불평등 세대론은 청년세대가 노동시장에서 유사한 불안정성에 직면해 있으며, 586으로 대변되는 중장년층이 자원을 독점하고 청년세대의 자원과 기회를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대론을 통해 청년노동시장을 분석한 이 연구는, 청년 ‘세대’를 하나의 ‘프리즘’으로 활용하여 한국 노동시장의 제도 경직성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체 및 비전형 노동 집중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비슷하게, 청년세대가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동시성에 주목한 연구들이 있는데(이승윤 외 2016, 이승윤 외 2017), 이들 연구는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청년노동자의 평균적 노동불안정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청년층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주목하지 못한 부분은 청년집단 내 양극화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세대론의 관점에서 청년의 문제를 해석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사실 세대 간 불평등이 증가하지 않았으며(김창환, 김태호, 2020), 세대 내 격차가 불평등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한다(신광영, 2009). 이와 관련된 담론은 부모의 재산이 많아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축적된 부를 누릴 수 있는 청년을 지칭하는 ‘금수저’, 빈곤한 부모 슬하에 태어난 사람을 ‘흙수저’로 비유하는 등 청년세대 내 불평등에 대한 자조와 분노가 표출되는 신조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청년세대의 동질성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갖는 한계를 인식하고 청년세대 내의 불안정성이 균질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한다. 그리고 청년노동시장 내에서 보여지는 양극화와 계층화 경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즉, 전반적인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증가 경향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 내에서 불안정성은 양극화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불안정성의 궤적을 분석하고 유형화한다. 그리고 그러한 불안정성의 궤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이행 궤적은 어떻

게 유형화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이러한 불안정성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청년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젠더화, 계급화, 지역화에 주목한다.

II. 청년의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프리케리어트 계급 논의

1. 청년의 노동시장 불안정성

청년 노동시장에 대한 관심은 최근의 노동시장 변화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집단인 청년층이라는 분석들이 제기되면서(Matsumoto et al., 2012) 확대되어왔다. 먼저 청년노동시장에 관한 연구는 주로 청년들의 고용활성화에 주목해왔다.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및 이행에 관한 연구(박지에·남춘호, 2015; 박미희·홍백희, 2014; 오성욱, 2013; 이병희, 2011; 이상준·김미란, 2010; 김경휘, 2009; 반정호 외, 2005), 청년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변금선, 2015; 심재휘·김경근, 2015; 이자형·이기혜, 2013; 황여정·백병부, 2008; 이병희, 2003)가 대표적이다.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및 이행과 관한 연구들은 주로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 결정 요인, 직업선택과 만족도 그리고 노동이동 및 고용전환에 주목하면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직업경력 형성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청년층의 교육수준, 소득 계층에 따른 정규직 취업 및 임금수준에서의 차이 등을 분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주목하는 연구들도 최근 확대되어왔다. 이들 연구들은 실업(김유빈, 2015; 신선미 등, 2013 등) 및 NEET(정준영, 2015; 최용환, 2015) 그리고 고용불안정(금재호, 2013; 박성재·반정호, 2012; 남재량·김태기, 2000)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고용불안 및 빈곤문제(강순희, 2016; 김수정·김영, 2013; 백학영, 2013; 이현욱, 2013; 노혜진, 2012; 변금선, 2012; 김수정, 2010), 청년주거문제(최은영, 2014; 최병숙 등, 2013; 정민우·이나영, 2011) 등이 다루어졌다.

이들 연구들과는 달리 청년 정책을 고용뿐만 아니라 소득보장 측면도 동시에 고려할 것을 제안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이승윤 외, 2016; 김성희, 2009). 김성희(2009)는 한국의 실업자 지원제도가 취약하기 때문에 청년 실업자를 포함하여 일부 노동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있는 이들을 대상으로하는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이승윤 외(2016)의 연구에서는 한국 청년들의 생활비용을 산출하

여 어느 정도의 소득보조가 바람직한 수준인지 검토하고 청년층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할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기존의 청년과 관련된 주류 연구들이 ‘청년들을 어떻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의 고용증진 방안에 주목하고 있는 반면, 이들 연구들은 청년들의 불안정한 삶의 문제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서 찾고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이승윤 외 (2017)의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청년의 불안정성이 얼마나 심각하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먼저 불안정성을 개념화하고 고용, 소득 그리고 사회보험 세 가지 측면의 불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holistic)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청년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양극화를 확인했다는 점, 청년들의 인구학적 속성과 불안정성의 통계적 관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개인적 속성들과 불안정성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을 뿐, 청년들의 불안정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이행되고 유형화되는지를 분석하고 있지는 못하다.

2. 불안정노동의 계급화, 젠더화, 지역화

가. 노동의 불안정성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의 불안정성에 대한 개념 정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노동의 불안정성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예측불가능하며, 위험한 상태로 규정되기도 하고(Kalleberg, 2009:2), 고용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 임의적이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훈련, 노동자의 협상력이 낮고 저임금이 지속되는 상태로 정의되기도 한다(Kroon & Paaue, 2013). 그리고 비표준적 고용관계, 비전형 고용관계, 취약한 노동(vulnerable work), 일용노동(disposable work), 임시노동(contingent work)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취약해진 노동과 그것의 부정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정의되기도 한다(Wayne & Green, 1993; Kalleberg, 2000 등).

이들은 주로 노동의 불안정성을 고용형태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의 불안정성을 고용형태의 측면에서만 접근할 경우에는 서비스 경제 사회에서 나타나는 노동 불안정성의 복잡성과 모호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백승호, 2014). 그 이유는 불안정한 상태(the state of precarity)가 정치경제, 사회적 맥락과 국가의 노동시장 전략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ILO, 2011: 5). ILO(2011)는 노동의 불안정성을 불확실성(uncertainty), 불안전성(insecurity)을 키워드로 정의하고 있다. 불확실성은 고용계약 형태(Contractual arrangements)의 불안정성이다. 여기에는 제한된 계약기간(단기,

기간제, 임시직 등), 불안정한 고용계약관계(삼각계약관계 등)가 포함된다. 불안정성은 불안정한 노동조건들과 관련된다. 여기에는 저임금, 낮은 수준의 고용 및 사회적보호, 노동권에 대한 접근의 제한 등이 포함된다(ILO, 2011).

이들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노동의 불안정성은 고용계약 형태, 임금 및 소득, 사회적 보호에서의 불확실성, 불안정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백승호, 2014). 기존의 연구들은 이들 불안정성 각각의 차원들을 독립적으로 분석하여 그 규모를 산출하거나,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고용계약 형태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에서의 차별과 사회적 보호에서의 배제 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노동의 불안정성은 고용, 임금, 사회적 보호 사이의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비스 경제사회에서 노동의 불안정성은 경제주체들이 노동비용을 줄이려는 전략적 선택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되기 때문이다(Eichhorst & Marx, 2012).

Eichhorst & Marx(2012)는 노동비용을 줄이려는 전략을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기간제나 파견제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활용하는 방법, 둘째, 시간제 근로 등 전일제 고용에서 벗어난 고용전략을 활용하는 방법, 셋째,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고용을 활용하는 방법, 넷째, 생산성이 낮은 저숙련 서비스 일자리에서 임금유연성을 확대하는 전략, 다섯째, 근로연계급여, 사회보험료 감면 등 정부지원을 통해 사용자의 노동비용을 공공예산으로 전가하는 전략이다. 이 다섯 가지 전략은 고용, 임금, 사회적 보호의 불안정성과 관련되며, 노동의 불안정성은 이들 세 가지 불안정성의 조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 보호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전략의 결과로 인해 고용과 임금의 불안정성이 고착화되고 있다면 불안정 노동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 고용 불안정성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임금과 사회적 보호에서의 불안정성이 여전하다면 불안정 노동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들 세 가지 차원의 조합을 통해서 불안정 노동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측정함에 있어 이 세 가지 측면의 불안정성을 모두 고려하는 통합적(holistic) 접근법을 취한다. 예를 들어 특수고용이나 임시고용은 고용 관계나 고용 기간 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사상 지위는 고용 측면에서 불안정성을 갖는다. 그러나 불안정 고용이 반드시 노동시장에서의 전반적인 불안정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불규칙,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 수준이 매우 높은 경우는 임금의 높은 안정성이 고용의 불안정 효과를 일부분 상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임금(시장임금), 고용 그리고 사회적임금(사회보험)의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측정하고, 이들의 궤적을 추적

하여 계층화의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 불안정 노동의 계급화, 젠더화 지역화

그렇다면 한국에서 불안정 노동은 계급화되고 있는가? 백승호(2014)는 직업 계층으로 측정한 계급 분류를 사용하여 한국에서 불안정 노동의 계급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백승호(2014)에 따르면, 저숙련 서비스 노동자 계급과 생산직 노동자 계급에서 고용, 소득, 사회적 임금의 세 가지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중첩적인 불안정성이 확인되었다. 즉 불안정 노동의 계급화가 저숙련 서비스직과 생산직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계급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전통적 산업사회의 계급 구분을 여전히 사용하는 맑스주의 전통의 계급분류(Wright, 1985), 베버주의 전통의 계급분류(Goldthorpe, 2000)와 서비스 경제사회에서의 수직적 위계를 반영한 계급분류(Esping-Andersen(1993)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비스 경제사회는 수직적 계급분화 뿐 아니라, 수평적 분화 현상 또한 가속화되어왔다(신광영, 2008: pp.79-80; Oesch, 2006: 39). 이러한 Oesch(2006, 2008), 백승호(2014) 등의 연구는 서비스 경제사회에서 계급의 수평적 분화 현상을 반영하여 계급을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함의가 크다. 특히 백승호(2014)는 한국에서 불안정 노동의 계급화를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백승호(2014)는 어떤 직업 계층이 프레카리아트화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 머물러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급의 분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분석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기존의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된 계급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매우 드물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불안정 노동의 계급화가 어떻게 구조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청년 불안정 노동에서 계급의 구조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계급의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의 청년 담론이 주로 세대간 격차와 갈등에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이철승, 2019 등)는 점에서 이러한 논의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의의가 크다고 판단된다.

청년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젠더화에 대해서는 최근 변화 양상이 발견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상직 등(2018)은 4년제 대학 졸업자를 1990년대 초·중반, 19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중반 졸업 코호트로 구분하고 노동이력의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여성에게서 노동이력의 내부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청년 여성들에게서 안정적 이력군, 유동적 이력군, 비취업 이력군의 삼분구도에 추가적으로 취업이력군이 대폭 증가

하면서 불안정화로 보기 어려운 내부분화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김이선 등(2019)은 1998년에서 2002년 사이에 졸업한 여성의 일자리 이력 분석을 통해 고용형태와 기업 규모에 따라 젠더화된 노동시장의 중첩적 불평등 구조가 존재함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고용불안정에만 집중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지역의 청년노동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지역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는 연구들(광주청년유니온, 2018; 김정선 외, 2016; 진형익 외, 2018 등)이 대부분이다. 최근 지역 청년들의 노동시장 경험에 대한 연구들은 지역 청년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 경험과 노동 경험의 동학들을 질적인인터뷰를 통해 서사적으로 풀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양승훈, 2021; 전명숙, 2018). 전명숙(2018)은 전남지역 대중 청년 여성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산업과 업종을 변경하는 경력 간 노동이동이 많으며, 주요 원인이 취업준비과정에서의 문제점임을 밝히고 있다. 양승훈(2021)은 지방대생들의 노동시장 차별경험, 사무직 직무수행기회의 부족, 지역 중소기업의 임금과 인사체계 문제가 지역 청년의 수도권 유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청년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지역화가 고착화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양적분석을 통해 이러한 현상들이 유의미하게 관찰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과 연구자료

1. 연구자료

가. 분석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2008년 시점에 19세(1989년생)에서 50세(1958년생) 사이의 경제활동 참가자들이 경험한 불안정 노동의 변화를 분석한다. 세대간 불안정노동 경험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이들 연령을 19세에서 34세, 35세에서 50세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 두 세대에서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궤적과 이행궤적의 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즉, 19세에서 34세의 청년집단과 35세에서 50세로 구성된 비청년집단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노동시장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이들의 패널자료를 통해 이들의 지난 12년 동안 노동시장에서 불안정과 안정성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이들의 이력을 추적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취업자와 실업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장기실업자, 잠재실업자, 취업준비생도 실업자로 분류하여 포함하였고, 순수비경제활동인구는 제외되었다.

분석자료는 한국노동패널자료 5차년도(2002년)부터 23차년도(2020년)의 개인자료를 활용하였다. 5차년도 부터의 자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본 연구에서 고용 불안정성 지표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변수 중 하나인 ‘계속근무 가능성’을 묻는 문항이 1차, 2차, 4차년도에는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5차년도에서 23차년도 자료는 연령별 노동 불안정성의 추이를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추이 분석을 통해 노동 불안정성의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불안정 노동 유형의 이행궤적 분석은 2007년 지구적 경제위기 이후 시점인 2008년(13차년도)부터 최근 자료인 23차년도(2020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청년들의 불안정성 경향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는 집단중심추세분석(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을 통해 세대별 불안정노동의 이행궤적을 유형화하였다. 집단중심추세분석은 관심을 두고 있는 변수에서 유사한 변화 궤적을 보이는 하위집단들을 유형화하는데 유용한 분석방법이다(변금선, 2018). 집단중심추세분석은 다양하게 척도로 측정된 종속변수를 이용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행의 궤적을 유형화 할수 있기 때문에 모집단 내에서 이질적인 변화 궤적을 보이는 하위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러한 유형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유용하다(변금선, 2018: 81; Nagin, 2005). 본 연구에서는 고용, 소득, 사회보험의 불안정성으로 측정된 불안정 노동 지표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노동불안정성을 유형화하였다.

집단중심추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 자료에 가장 적합한 궤적의 수와 궤적함수를 결정한다.

궤적의 수는 1개부터 차례로 증가시키면서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on)의 크기 및 변화량, 각 궤적에 할당된 사례의 비율을 통해 궤적수와 궤적함수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BIC는 낮을수록 적합도가 좋으며, 궤적의 수를 증가시킬 경우 측정된 BIC 값의 변화량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Jones, etc, 2001). 본 연구에서는 BIC의 변화량, 각 집단에 할당된 비율이 모두 10%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Hook etc, 2016) 궤적 수를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각 개별 사례들이 해당 궤적에 포함될 사후확률(Posterior group membership probabilities)이 70%이상인지를 확인하여 최종 궤적 수와 궤적 함수를 결정하였다.

셋째는 산출된 청년 불안정 노동 이행 유형을 종속변수로 하여, 성, 연령, 2008년 기준 거주 지역, 비수도권 거주기간, 계급, 가구소득, 교육수준이 이행궤적의 유형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서열로지스틱회귀분석으로 확인하였다.

3. 변수의 구성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는 노동 불안정성 지표와 계급 그리고 지역 변수다.

가. 노동 불안정성의 개념과 지표구성

본 연구는 청년노동자의 불안정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고용, 소득, 사회적 보호에서의 불안정성으로 개념화했다(백승호, 2014; 이승윤 등, 2017).

먼저 고용 불안정성의 측정에서 임금근로자는 고용계약형태, 근로시간, 근로제공 방식으로 구분하여 비정규직 여부를 측정한 김유선(2020)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비임금근로자는 5인 미만의 유급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를 불안정 노동 집합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되는 잠재구직자, 잠재취업가능자 등도 고용불안정에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소득불안정성의 측정에서 ILO의 저임금 판정 기준을 활용하였다.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모두 시간당 중위임금 또는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경우를 소득불안정성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보호에서의 불안정성은 사회보험 가입여부로 측정하였다.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사회적 보호에서 불안정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는 소득을 시간당 소득으로 환산하여 측정하였다.

이렇게 측정된 고용, 소득, 사회적 보호에서의 불안정성 변수를 활용하여 불안정 노동 지표를 구성하였다. 세 변수의 조합으로 8가지의 불안정 유형이 도출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8가지 불안정성 조합을 다시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고용, 소득, 사회보험 세 변수 모두에서 불안정한 경우는 “매우 불안정”, 셋 중 두 가지의 경우가 불안정한 경우는 “불안정”, 셋 중 한 가지만 불안정한 경우는 “다소 불안정”, 그리고 세 가지 모두 안정한 경우는 “안정”으로 분류하였다.

나. 직업계층(계급)의 측정

계급을 측정하는 방법은 소득, 직업지위 등 다양하다. 본 연구는 Goldthorpe(2000)와 Oesch(2006) 등 노동시장에서의 직업지위에 기초하여 계급을 구분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제안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계급구분은 유사한 직업에 속한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 경험을 유사하게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유용하다(Häusermann and Schwander, 2009).

본 연구에서 취업자들의 계급 구분은 Oesch(2006, 2008)의 분류기준에 따른다. Oesch(2006, 2008)은 1998년 국제표준직업분류(ISCO-88) 네 자리 코드에 기초해서 계급을 15개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SCO-88과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KSCO-5)를 연계한 코드에 기초해서 계급을 분류하였다 다만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세 자리 코드 값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세 자리 코드 값을 활용하였다(백승호, 2014).

본 연구에서는 Oesch(2008)의 제안에 따라 15개 계급(아래 표 1)을 다시 8개 계급으로 통합하여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독립적 작업방식에 해당하는 계급의 경우 (1)은 고용주와 자영전문가 집단(Self-employed professionals and large employment)으로, (2)와 (3) 집단을 소상공인(Small Business Owners: SBO) 계급으로 분류하였다. 기술적 작업방식에 해당하는 (4)와 (5) 집단은 기술전문가(Technical Specialists: TS), (6)와 (7) 집단은 생산

<표 1> 서비스경제에서의 8개의 계급 구조

작업방식(work logic)					
독립적 (independent) 작업방식	기술적 (technical) 작업방식	조직적 (organizational) 작업방식	대인적 (interpersonal) 작업방식		
(1)고용주 (피용인5인이상) 자영전문가 (변호사, 회계사등)	(4)기술전문가 (컴퓨터전문가등)	(8)고위관리자 (공공서비스 행정가등)	(12)사회문화전문가 (대학교수등)	전문/ 관리직	숙 련 도
(2)뼈때부루주아 (피용인4인 이하) (레스토랑경영자등)	(5)기술자 (전기기술자, 안전검사원등)	(9)준관리자 (소규모기업 관리자등)	(13)사회문화 준전문가 (초등학교교사등)	준전문/ 관리직	
(3)피용인이없는 자영자	(6)숙련장인 (목수등)	(10)숙련사무직 (비서등)	(14)숙련서비스직 (요리사등)	일반/ 직업적 숙련	
	(7)단순기능공, 농림어업관련 단순종사자	(11)일반사무직 (점원등)	(15)일반서비스직 (가사도우미등)	낮은/ 비숙련	

직 노동자(Production Workers: PW)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조직적 작업방식에 해당하는 계급인 (8)과 (9) 집단은 관리자(Managers: M)로, (10)과 (11) 집단은 사무원(Clerks: C)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인적 작업방식에 해당하는 (12)와 (13)집단은 사회문화전문직(Socio-Cultural Professionals: SCP)으로, (14)와 (15) 집단은 저숙련 서비스 노동자(Low Skill Service Workers: SW)로 분류하였다.

<p>고용주와 자영전문가 집단 (Self-employed professionals and large employment): (1)</p>	<p>소상공인 (Small Business Owners: SBO): (2)와 (3)</p>	<p>기술전문가 (Technical Specialists: TS): (4)와 (5)</p>
<p>생산직 노동자 (Production Workers: PW): (6)와 (7)</p>	<p>관리자 (Managers: M): (8)과 (9)</p>	<p>사무원 (Clerks: C): (10)과 (11)</p>
<p>사회문화전문직 (Socio-Cultural Professionals: SCP) : (12)와 (13)</p>	<p>저숙련 서비스 노동자 (Low Skill Service Workers: SW): (14)와 (15)</p>	

*자료: 백승호(2014), Oesch(2008), Häusermann and Schwander(2009: 11) 재구성.

다.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역요인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비수도권의 격차와 노동시장 불안정성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1) 추적이 시작되는 시점인 2008년에 개인들의 거주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한 변수와 2) 비수도권에 거주한 기간 변수를 각각 포함하였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며, 그 외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였다.

이외에 통제변수로 2008년 기준 가구소득과 교육연수가 비율변수로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변수 정의

구분	변수	변수 정의
종속변수	불안정성 이행 집단 유형	불안정 노동 지표를 종속변수로 집단중심추세 분석을 통해 산출된 집단 유형
독립변수	직업계층(계급)	KSCO를 활용하여 측정한 계급분류
	지역	수도권(0), 비수도권(1)
	비수도권 거주기간	비수도권에 거주한 연수
	성	남성(0), 여성(1)
	연령	만 나이
	가구소득	2007년 가구소득*
	교육수준	2008년까지의 교육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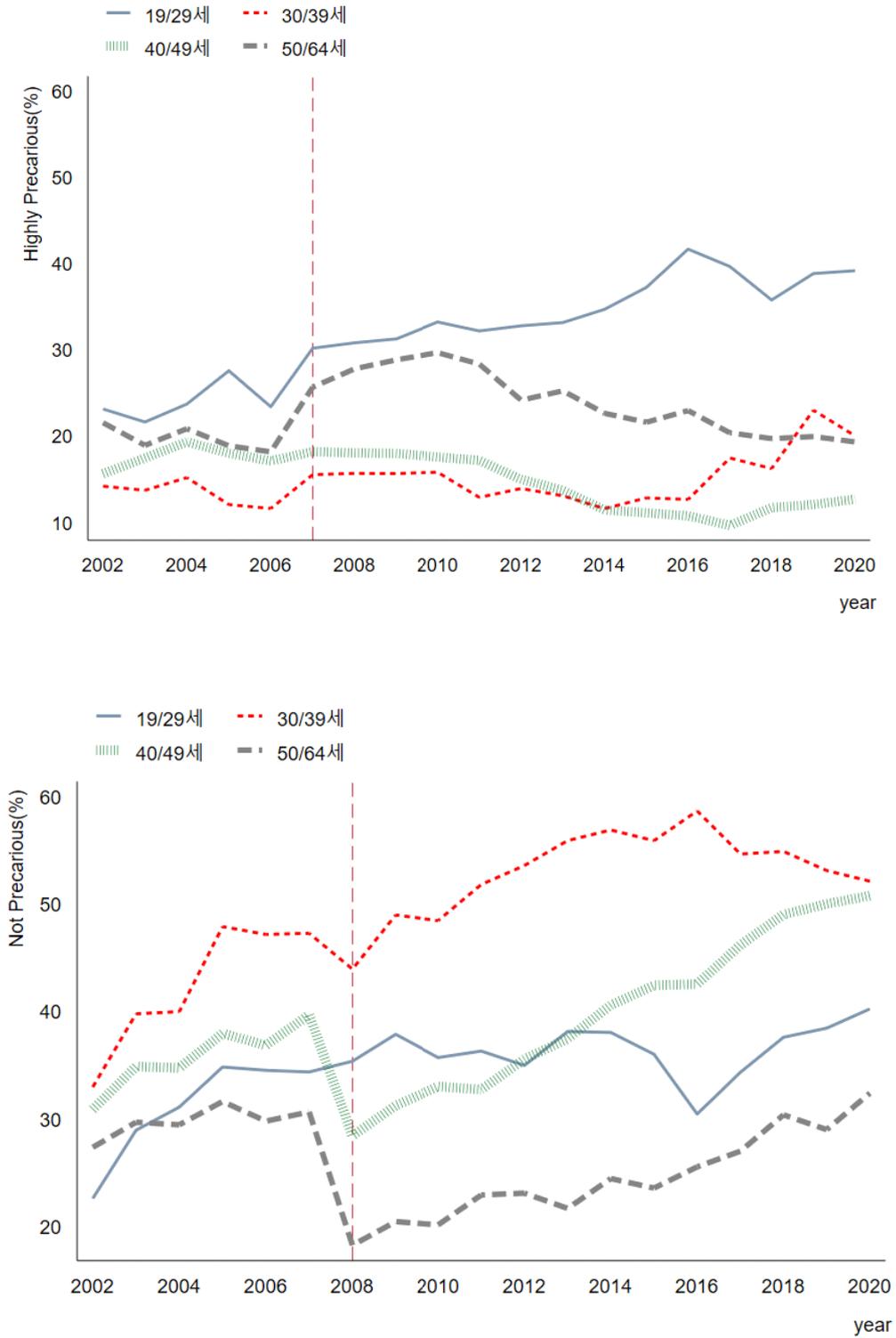
* 패널자료에서 가구소득은 전년도의 소득을 조사하여, 2008년 조사 자료에서 가구소득은 2007년도의 가구소득을 나타낸다.

IV. 청년 세대 불안정노동의 유형과 결정요인 분석 결과

1. 청년세대 불안정노동의 변화 경향

먼저, [그림 1]은 고용, 소득, 사회보험을 기준으로 측정한 불안정 노동 중 ‘매우 불안정’ 집단과 ‘불안정하지 않음’ 집단의 규모가 2002년 이후 연령별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20대의 경우 ‘매우 불안정’ 집단의 규모가 가장 컸고, 2005년과 2016년에 불안정성이 다소 감소 경향을 보였던 시기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정 집단(not precarious)을 살펴보면, 30-40대 연령층에서 안정적인 집단이 가장 비중이 크고 증가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20년까지 불안정한 집단과 안정적인 집단의 규모변화를 살펴보면 2007-08년에 다소 이변이 보여지고 이후 일정정 경향성이 나타난다. 본 연구는 지역과 직업분류를 주요변수로 고려하여 청년집단과 비청년집단의 궤적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2008년 시점부터의 궤적을 분석하기로 한다. 이는 또한, 2020년은 기준으로 너무 오래 된 과거로 회귀하여 분석을 하는 경우, 연령효

과가 나타날 수 있어 12년 간의 궤적 분석을 위한 목적에도 부합한다.



[그림 1] 연령별 '매우불안정'과, '불안정하지 않음'의 변화 경향

2. 불안정 노동 이행계적 유형화

가. 청년 불안정 노동의 이행계적 유형화

불안정 노동의 이행계적 유형화는 2008년 기준 19세~34세와 35세~50세 두 연령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중심추세분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2008년 당시 19~34세였던 청년들의 불안정 노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유형화되는지에 주목하고 있는데, 비교를 위해 성인 연령인 35~50세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먼저 2008년 당시 두 연령집단에 해당된 사례들의 최적 불안정 노동 유형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변 소속비율과 BIC 값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청년 불안정 노동 이행 계적 수 5개로 결정하였다.

<표 2> 최적 유형 수 추정

계적수	함수식	BIC	AIC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	5집단	6집단
1	1	-30377.3	-30368.4	100					
2	12	-26023.3	-26002.5	55.1	44.9				
3	122	-25111.6	-25078.8	15.3	45.5	39.2			
4	1222	-24722.3	-24677.6	14.8	37.7	16.4	31.0		
5	12222	-24453	-24396.5	12.1	33.6	11.3	16.5	26.4	
6	122222	-24299	-24236.5	7.8	10.3	12.2	29.2	25.9	14.6

다음으로 추정된 5개 집단의 모형적합도를 확인한 결과(표 3) 평균 사후확률이 70% 이상이었으며, 할당 정확도의 odds는 5이상이어서 5개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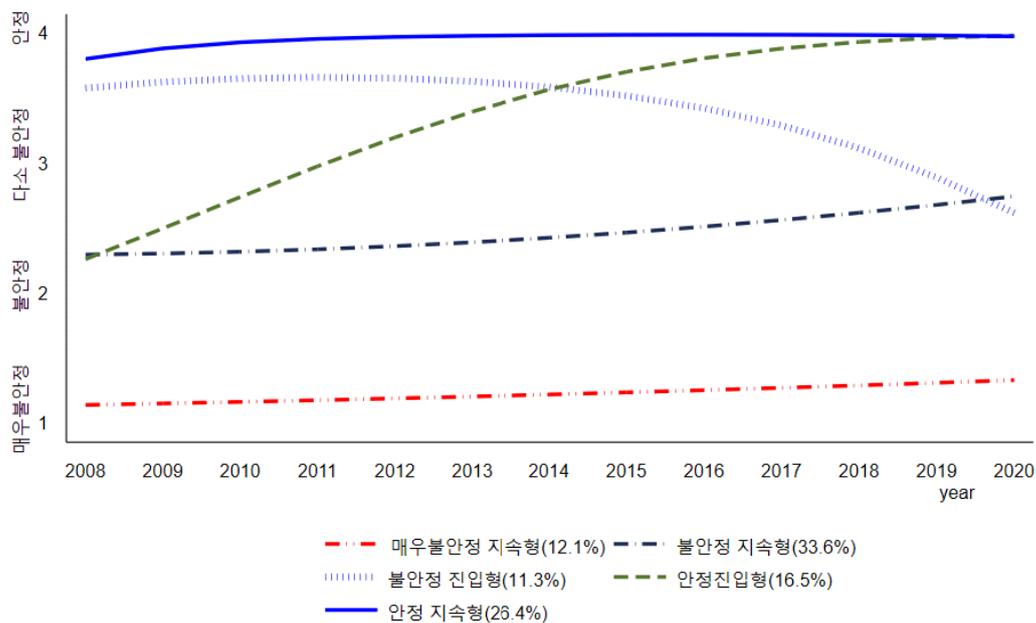
<표 3> 5개 집단의 모형 적합도

집단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	5집단
평균사후확률	0.78	0.84	0.81	0.82	0.87
occ	21.96	9.84	42.99	28.05	17.05

[그림 2]는 2008년 당시 19~34세 청년의 불안정 노동의 이행 유형과 그 계적을 보여주고 있다. 매우 불안정 지속형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고용, 소득, 사회적보호 모두가 불안정한 집단으로 12.1%가 여기에 속해있었다. 불안정 지속형은 고용, 소득, 사회적 보호 중

두 가지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유지되었던 집단이다. 이 집단에는 33.6%가 속해 있었다. 불안정 진입형은 고용, 소득, 사회적 보호 모두에서 안정적이다가 이들 지표에서 두 개가 불안정해지는 궤적의 변화를 보이는 집단으로 11.3%가 여기에 속해있었다. 안정진입형은 고용, 소득, 사회적 보호 지표에서 두 개가 불안정한 집단에서 빠르게 모두 안정적인 상태로 변화하는 집단으로 16.5%가 여기에 속해 있었다. 안정지속형은 고용, 소득, 사회적 보호 지표 모두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집단으로 26.4%가 여기에 속해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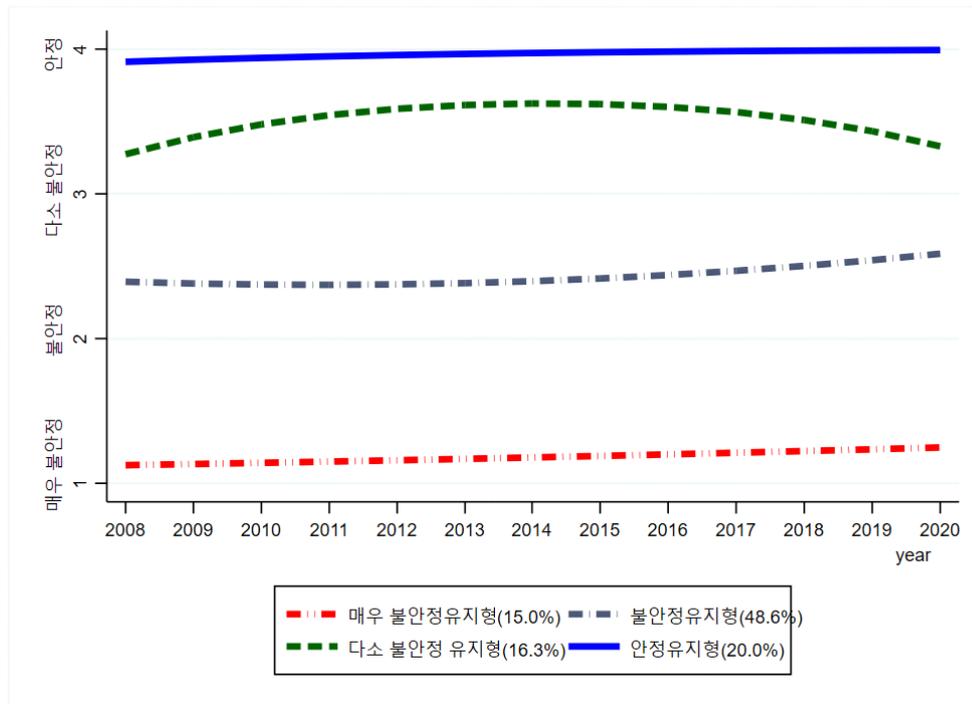
이와 같은 청년 불안정 노동 유형의 궤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불안정 노동의 경험에서 청년들이 단일한 하나의 세대로 묶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청년집단은 불안정성(매우 불안정집단과 불안정집단)이 지속되는 약 46%의 집단과 안정이 지속되는 26% 정도의 집단으로 양극화 되고 있었다. 그리고 약 28% 정도는 불안정으로 진입하거나, 안정으로 진입하는 경우로 불안정 노동 궤적의 변화를 경험하는 유동적인 집단이었다.



[그림 2] 청년 집단(19~34세)의 불안정 노동 이행 궤적

그렇다면, 35세-50세까지의 비청년집단을 결과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35-50세의 경우, 19-34세 청년의 약 28% 정도가 불안정성에 있어 변화를 경험(불안정진입형과 안정진입형)하는 유동적 집단이었던 것과 상이하다. 2008년 당시 35~50세 연령집단의 불안정 노

동 경험의 이행계적은 4개로 유형화되고 있었는데, 청년들의 불안정 노동 이행계적과 달리 불안정 노동 수준 간 이동이 없이 고착화되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우불안정 지속형은 15%, 불안정 유지형은 48.6%, 다소불안정 유지형은 16.3%, 안정유지형은 20%였다. 즉, 청년기에서 보여준 양극화의 경향은 35세-50세에서는 4개의 계층으로 고착화되어 큰 변화가 없는 계층화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림 3] 35~50세 연령집단의 불안정 노동 이행계적

나. 청년 불안정 노동 유형의 특징

<표 4>는 청년 불안정 노동 유형들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안정 지속형에, 여성은 불안정지속형에 가장 많이 속해있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매우불안정지속형, 불안정진입형, 불안정 지속형의 합이 63%에 달해 불안정성의 여성화가 확인되고 있었다. 계급의 경우 자영업과 사회서비스 관련직에서 불안정 지속형의 비율이 높았고, 기술적 작업방식과 조직적 작업방식을 특징으로하는 기술전문직 등은 안정지속형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2008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청년 불안정 노동의 유형을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불안정 지속형에 소속되어있었다. 2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속해있을 경우 매우 불안정 지속형은 2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 여부와 불안정성의 분포는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비수도권 거주기간의 경우 6-10년 비수도권에 거주한 경우 매우 불안정 지속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2008년 기준, 단위: %)

구분		매우 불안정 지속형	불안정 진입형	불안정 지속형	안정진입형	안정 지속형
남성		14.5	9.0	28.2	15.5	33.0
여성		16.2	7.9	38.5	13.2	24.1
계급	자영전문직	7.0	1.8	74.4	7.6	9.2
	소상공업	5.0	4.5	76.4	12.9	1.3
	사회문화전문직	3.1	11.1	39.1	12.0	34.7
	저숙련서비스직	10.6	12.4	46.5	11.1	19.5
	기술전문직	0.6	14.5	8.8	8.5	67.6
	생산직	5.0	15.2	23.4	10.7	45.8
	관리직	2.0	10.4	15.1	6.9	65.7
	사무직	3.5	11.9	21.6	9.1	53.9
가구소득 (2008년)	100만원 미만	21.7	7.4	41.4	10.7	18.8
	100~200만원 미만	20.1	8.9	35.1	16.1	19.8
	200~300만원 미만	13.5	8.0	33.4	16.0	29.2
	300~500만원 미만	12.8	8.6	33.8	15.1	29.8
	500만원 이상	14.4	8.8	26.9	11.2	38.8
거주지역 (2008년)	비수도권	14.3	7.7	34.5	15.3	28.2
	수도권	16.2	9.1	32.1	13.6	29.1
비수도권 거주기간	수도권만 거주	16.6	8.9	32	14.4	28.2
	1년~5년	17.0	8.1	31.9	9.0	34.0
	6년~10년	20.7	3.1	34.8	11.8	29.6
	11년~ 15년	10.5	4.5	37.0	16.7	31.4
	16년이상	12.1	12.7	33.1	16.2	25.9

다. 청년 불안정 노동 이행 유형 결정요인

<표 5>는 어떤 요인들이 청년 불안정 노동의 이행궤적과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불안정 노동의 이행유형은 매우불안정지속형에서 안정 지속형까지 서열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열로지스틱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모델 1은 2008년에 19~34세 연령의 청년집단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청년집단의 경우 여성일 경우, 저숙련서비스직 기준으로 자영업일 경우, 비수도권에 거주할 경우, 비수도권 거주기간이 길수록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을 분석되었다.

모델 2는 2008년 기준 35세에서 50세 연령집단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전반적인 패턴은 모델 1과 비슷하였다. 다만, 여성의 경우 불안정 노동 경험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49% 낮았다. 청년집단보다 성인집단에서 불안정성의 젠더화가 더 심각하게 관찰된다고 할 수 있다. 저숙련 서비스직을 중심으로 하는 불안정성의 계급화는 모델 2에서도 확인되었다. 비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모델 1과 같이 불안정 노동을 경험할 가능성을 다소 높이고 있었지만, 비수도권 거주기간 변수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상실하였다. 2008년 기준 35세~50세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서는 불안정성의 젠더화와 계급화는 여전히 확인되었지만, 불안정성의 지역화는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5> 청년 불안정 노동의 유형 결정요인 분석

변수	Model 1.	Model 2.
	19세-34세(2008년기준) Odd ratio (Std. err)	35세-50세(2008년기준) Odd ratio (Std. err)
여성(기준: 남성)	0.79. (0.08)	0.51... (0.04)
연령	1.03. (0.01)	0.95... (0.01)
가구소득	1.00. (0.00)	1.00 (0.00)
직업계층(기준:저숙련 서비스직)		
자영전문직	0.63. (0.15)	1.23 (0.19)
소상공업	0.72 (0.14)	1.65... (0.20)
사회문화전문직	1.36. (0.21)	3.69... (0.68)
기술전문직	5.10... (1.07)	4.77... (1.06)
생산직	2.37... (0.36)	1.89... (0.22)
관리자	3.90... (0.73)	4.74... (0.82)
사무원	2.94... (0.46)	2.73... (0.43)
교육년수	1.20... (0.33)	1.07... (0.02)
비수도권(기준:수도권)	0.64. (0.11)	0.67. (0.13)
비수도권거주기간	0.97.. (0.01)	0.98 (0.01)
cut1	0.12 (0.55)	-4.11 (0.52)
cut2	1.51 (0.54)	-2.89 (0.51)
cut3	3.30 (0.54)	-0.50 (0.51)
Pseudo R2	0.0655	0.0665
N	1,719	2,790

* p<.05 ** p<.01 *** p<.001

* ()는 표준오차

<표 6>은 청년들의 불안정 노동을 분석한 모델 1의 서열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안정형들(안정진입형, 안정지속형)에 속할 확률 대비 불안정형들(매우불안정지속

형, 불안정진입형, 불안정지속형)에 속할 확률의 비율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각 개인들이 해당 유형에 속할 확률을 구한 후 불안정형에 속할 확률의 합을 안정형에 속할 확률의 합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표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던 변수들을 중심으로 불안정형에 속할 확률의 합이 안정형에 속할 확률의 합보다 얼마나 큰지를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불안정형들에 속할 확률이 여성은 1.18배, 비수도권거주자는 1.05배, 저숙련서비스직은 1.8배, 교육년수가 평균에 속하는 개인들은 1.6배, 비수도권에만 22년간 거주한 개인은 1.32배 높았다. 계급별로 보면, 고용주 및 자영전문직에서 불안정형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고, 저숙련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불안정형에 속할 확률이 1.8배 높게 나타났다.

<표 6> 안정형 대비 불안정형에 속할 확률의 비율(모델 1 기준)

구분	남성	여성	수도권거주	비수도권거주	34세	46세
불안정형/안정형	0.88	1.18	0.98	1.05	1.00	0.76
구분	고용주 및 자영전문직	사회문화 전문직	저숙련서비스직	기술전문직	생산직	
불안정형/안정형	1.90	1.00	1.80	0.21	0.74	
구분	관리직	사무직	교육년수		비수도권거주기간	
			12년	21년	7년	22년
불안정형/안정형	0.34	0.49	1.6	0.20	0.85	1.32

* 연령, 교육년수, 비수도권거주기간은 평균값과 최대값을 투입하였다.

VI.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청년 세대 내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불안정한 청년 세대론의 한계를 비판하고, 노동시장 경험에서 청년 세대의 다양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 세대들에게 존재하는 노동시장 경험의 다양한 이행 궤적과 불안정성의 젠더화, 계급화, 지역화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불안정 노동을 고용, 소득, 사회적 보호에서의 종합적 불안정성으로 지표화하고, 집단중심추세 분석을 통해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이행궤적을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불안정 노동의 이행궤적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들의 노동시장 경험의 이행패턴은 5개로 분류할 수 있었다. 다섯 가지 유형은 매우 불안정함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유형, 불안정한 경험을 지속하는 유형, 안정으로 진입하는 유형, 안정에서 불안정으로 진입하는 유형,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유형이다.

둘째, 청년들의 불안정 노동 경험은 **저숙련 서비스직 중심**으로 계층화되고 있었다. 저숙련 서비스직에 비해서 사회문화전문직, 기술전문직, 생산직, 관리자, 사무원 모두가 안정적인 노동시장 경험을 하는 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높았다. 특히 저숙련 서비스전문직보다 기술전문직은 안정적인 노동시장 경험을 할 집단에 속할 확률이 5배가 높았다. 그리고 저숙련 서비스직은 안정형 보다는 불안정형에 속할 확률이 1.8배 높았다.

셋째, 청년 불안정성 노동 경험의 **젠더화가 확인**되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안정적 노동시장 경험을 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0.79배 즉, 21% 낮았다. 그리고 안정형 보다 불안정형에 속할 확률이 남성은 0.8배로 낮았지만, 여성은 1.18배 높았다.

넷째, 지역격차가 **청년 불안정 노동 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었다. 2008년 시점에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보다 비수도권에 거주할 경우, 그리고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년들은 불안정 노동 경험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비수도권하는 청년들은 불안정한 노동시장 유형에 속할 확률이 1.05배 높았고, 비수도권에 거주한 기간이 7년이 경우 불안정한 노동시장 유형에 속할 확률이 0.85배로 낮았지만, 22년 동안 비수도권에 거주한 청년은 그 확률이 1.32배로 증가하였다.

참고문헌

- 강순희, 2016, 「취업청년의 초기 일자리 변동과 고용안정성」, 『한국청소년연구』 27(4), 5-29.
- 광주청년유니온·광주청년센터the숲. 2018. 광주지역 산업단지 청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 교육부, 2018, 『교육기본통계』, 교육부.
- 금재호, 2013, 「청년의 고용불안과 재취업」, 『노동리뷰』 4, 66-82.
- 김경휘, 2009, 「정규직 청년근로자의 고용특성 및 정규직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2, 25-57.
- 김성희, 2009, 「불안정노동층을 위한 실업부조 도입 및 고용보험 확대 방안」, 『사회법연구』 12, 81-121.
- 김수정, 2010, 「청년층의 빈곤과 이행의 곤란」, 『사회보장연구』 26(3), 49-72.
- 김수정·김영, 2013, 「한국과 일본 청년층의 빈곤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정책』 20(1), 223-247.
- 김유빈, 2015, 「청년층 노동시장의 실태와 청년고용정책」, 『노동리뷰』 7, 5-14.
- 김유선, 2020,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0.8)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0(2), 1-33.
- 김창완·김태호, 2020, 「세대 불평등은 증가하였는가? 세대 내, 세대 간 불평등 변화 요인 분석, 1999-2019」, 『한국사회학』 54(4), 161-205.
- 남재량·김태기, 2000, 「비정규직, 가교(bridge)인가 함정(trap)인가?」, 『노동경제논집』 23(3), 81-106.
- 노혜진, 2012, 「빈곤가구 자녀의 노동시장 진입과정 유형화」, 『사회복지정책』 39(4), 109-134.
- 박미희·홍백의, 2014,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과 그 결정요인」, 『사회복지정책』 41(4), 21-49.
- 박성재·반정호, 2012, 「청년 취업자의 저임금근로 진입과 탈출에 관한 연구: 노동이동의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8(1), 163-190.
- 박지애·남춘호, 2015, 「학교-직장 이행과정의 직업경력 배열분석: 출신학교 소재지별 차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16(3), 149-189.
- 반정호·김경희·김경휘, 2005, 「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3), 73-103.
- 백승호, 2014, 「서비스경제와 한국사회의 계급, 그리고 불안정 노동 분석」, 『한국사회정책』 21(2), 57-90.
- 백학영, 201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와 불평등 그리고 빈곤: 연령집단별 차이

- 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0(3), 75-105.
- 변금선, 2012, 「청년층의 근로빈곤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4(3), 257-279.
- 변금선, 2015, 「가구 소득계층에 따른 청년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 취업 이행기간 및 임금수준을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18(1), 129-161.
- 변금선, 2018,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 변화-1960-1980년대 청년 코호트의 노동계적 비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정희·박경하, 2015, 「비정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불안정 노동」, 『한국사회정책』 22(4), 7-42.
- 신광영, 2008, 「서비스 사회의 계급과 계층구조」, 신광영, 이병훈 외. 『서비스 사회의 구조변동』. 한울.
- 신광영, 2009, 「세대, 계급과 불평등」, 『경제와 사회』 81, 35-60.
- 신선미·민무숙·권소영·김호원·민현정, 2013, 「미취업 여성청년층 실태와 고용정책 과제」, 『한국취업진로학회 학술대회』, 121-148.
- 심재휘·김경근, 2015, 「대졸 청년층의 초기 노동시장 성과 영향요인 분석: 대학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1(1), 113-138.
- 오성욱, 2013, 「구직경로별 대졸청년구직자의 직업선택이 직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37, 93-117.
- 양승훈, 2021, 「“제가 그래도 대학을 나왔는데”: 동남권 지방대생의 일경험과 구직」, 『경제와 사회』, 통권 131호, 10-54.
- 이병희, 2003, 「재학 중 근로경험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노동경제논집』 26(1), 1-22.
- 이병희, 2011,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청년 고용 문제, 눈높이 때문인가?」, 『산업노동연구』, 17(1), 71-95.
- 이부형·류승희, 2021, 「국내 니트족(NEET) 현황과 시사점-니트의 장기화 예방이 시급하다」, 『경제주평』, 통권 905호. 현대경제연구원.
- 이상준·김미란, 2010, 「인턴제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연구: 비정규직 근로형태로서의 인턴제를 중심으로」,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13(1), 1-25.
- 이승윤·백승호·김태환, 2021, 「비표준적 형태의 일과 사회보장개혁의 남아있는 과제들」, 『사회보장연구』 37(2), 139-176.
- 이승윤·이정아·백승호, 2016,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청년 기본소득 정책안」, 『비판사회정책』 52, 365-405.
- 이승윤·백승호·심미경·김윤영, 2017,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54, 487-521.
- 이승윤, 2019, 「청년 불안정노동의 시대」, 『황해문화』, 20-43.

- 이자형·이기혜, 2013, 「대졸자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의 구조적 관계: 비인지적 능력의 효과를 중심으로」,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14(2), 27-54.
- 이철승, 2019, 「세대, 계급, 위계: 386 세대의 집권과 불평등의 확대」, 『한국사회학』 53(1), 1-48.
- 이철승·정준호·전병유, 2020, 「세대·계급·위계Ⅱ:기업 내 베이비 부머/386 세대의 높은 점 유율은 비정규직 확대, 청년 고용 축소를 초래하는가?」, 『한국사회학』 54(2), 1-58.
- 이현욱, 2013, 「청년층 여성의 취업이동과 불안정 고용에 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 회지』 16(2), 105-118.
- 전명숙(2018), 「전남지역 대졸 청년여성의 지역노동시장 경험연구: 노동이동을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24권 2호, 215-245.
- 정민우·이나영, 2011, 「청년 세대, ‘집’의 의미를 묻다: 고시원 주거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5(2), 130-175.
- 정준영, 2015, 「특집: 청년 고용문제의 해법 찾기; 청년이 말하는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소고」, 『노동사회』 184, 42-50.
- 진형익 외. 2018. 창원시 공단 청년노동자 심층면접조사: 일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방안 모색 . 창원청년비전센터.
- 최병숙·최은영·권지웅·천현숙, 2013, 「아동과 청년의 주거빈곤」, 『도시와 빈곤』 104, 261-270.
- 최용환, 2015, 「OECD 국가의 ‘청년 니트(NEET)’ 유입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한국 청소년연구』 26(4), 85-115.
- 최은영, 2014, 「서울의 청년 주거문제와 주거복지 소요」, 『도시와 빈곤』 107, 5-61.
- 통계청(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5. 2021. 10. 16일 추출.
- 황여정·백병부, 2008,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11(2), 1-23.

Eichhorst, W. & Marx, P., 2012, *Whatever works: dualization and the service economy in bis7marckian welfare states. in Emmenegger, P., Häusermann, S., Palier, B. & Seeleit7Kaiser, M.(Eds.). The age of dualization: the changing face of inequality in deir7dustrializing societies,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Goldthorpe, J. H., 2000, *On sociology : numbers, narratives, and the integration of research and theory, Oxford.*

Häusermann, S. & Schwander, H.,2009, “Identifying outsiders across countries:

-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patterns of dualisation”, *Reconciling Work and Welfare in Europe*.
- Hook, J. L., Romich, J. L., Lee, J. S., Marcenko, M. O., & Kang, J. Y., 2016, “Trajectories of economic disconnection among families in the child welfare system”, *Social Problems* 63(2), 161-179.
- ILO, 2011 “From precarious work to decent work. Policies and regulations to combat precarious employment”, *ACTRAV BACKGROUND DOCUMENT 23*,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Jones, B. L., Nagin, D. S., & Roeder, K., 2001, “A SAS procedure based on mixture models for estimat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9(3), 374-393.
- Kalleberg, A. L., 2000, “Nonstandard employment relations: part-time, temporary and contract work”,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1), 341-365.
- Kalleberg, A. L., 2009, “Precarious work, insecure workers: employment relations in transi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4(1), 1-22.
- Kroon, B., & Paauwe, J., 2013, “Structuration of precarious employment in economically constrained firms: the case of Dutch agriculture”, *Human Resource Management Journal* 24(1), 19-37.
- Matsumoto, M., Hengge, M., & Islam, I., 2012, *Tackling the youth employment crisis: A macroeconomic perspective*, ILO.
- Nagin, D. S., 2005, *Group-based modeling of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 OECD, 2016, Labour market statistics.
- OECD, 2019. OECD Society at a glance. OECD.
- Oesch, D., 2003, “Labour market trends and the goldthorpe class schema: a conceptual reassessment”, *Swiss Journal of Sociology* 29(2), 241-262.
- Oesch, D., 2006, “Redrawing the class map: stratification and institutions in Britain, Germany, Sweden and Switzerlan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Politics*, 25, 1-28.
- Oesch, D., 2008, “Remodelling class to make sense of service employment: evidence for Britain and Germany”, *Paper presented at the CREST-ENSAE Seminar of Sociology in Paris, 20. 11. 2008*.
- Wayne, S. J. & Green, S. A., 1993, “The effects of leader-member exchange on employee citizenship and impression management behavior”, *Human Relations* 46(12), 1431-1440.
- Wright, E. O., 1989, *The debate on classes*. London: Verso

